

宗教 定義의 批判 (六)

哲學博士 金永羲

둘째 宗教는 價値 保存이나 創作에 滿足한 것이 아니라 價値의 主動者인 神과 調和的 삶이 잇슴을 이저서는 아니 된다. 宗教는 超現實한 神을 價値의 主動者로만 信仰하는 것이 아니라 그 神에 對한 感情的, 情意的 反應이며, 그 神과 사람의 온 삶을 聯合, 調和식히려는 努力을 表現함이다. 最上의 實在와 調和하여 最上의 價値와 一致되고 孤獨으로부터 救援되어서 우리가 推仰 아니 하려야 할 수 업는 그 무엇에 自我를 降服함으로 自我를 찾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보잘 것 업고 賤微한 生物이나마 우리는 사랑이 背後에 잇는 宇宙에 살고 잇서웁고, 無形한 듯한 이 宇宙에나마 우리를 爲하여 努力하고 사랑하는 神이 잇는 까닭에 우리를 무섭히 할 것이 업고, 엇더한 抑鬱과 憤怒에서든지 엇더한 즐임 엇더한 苦悶에서든지 平和를 일치 안는 그 自身과 經驗이 宗教이다. 이것은 우리가 現實을 將來와 超自然한 幻像에 맞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싸움을 無現하거나 쉬웁게 봄이 아니라, 우리의 싸호는 것이 勝利임을 確信함이다. 우리의 宗教生活은 眞善美의 價値는 不絶히 展開되고 그것은 最上 實在에 屬한 것을 認識하는 까닭이다. 이에 우리는 이 定義들이 두 큰 原因으로 滿足한 結論에 이르지 못한 것을 觀察할 수 있다. 첫째로 엇더한 이는 宗教라는 것이 自己들 가튼 伶俐한 頭腦를 가진 者로서는 갖가히 하지 못할 憎惡物인 듯이 諷刺的, 侮辱的 批評을 나렸다.

宗教를 客觀的으로 觀察하고 그 觀察된 現象이 檢定할 學說을 主張하지 안코 自己가 가진 主觀的, 偏見的 意見만으로 輕率히 論斷하였다. 둘째로 엇더한 이는 眞正한 學者의 態度로 宗教를 理解하려면서도 그 定義 方法에 잇서 自己의 專門的인 研究學科로 본 宗教現象 畧을 選擇하여 가지고 그 選擇된 材料로서 滿足한 結論을 어드려 하였다. 卽 엇더한 이는 그이가 取하는 態度가 넘우 主觀的, 偏見的인 까닭에 다른 이들은 비록 眞□한 態度를 取하

나마 그들의 方法이 不滿足한 싸닭에 合理的 宗教定義를 엿지 못하였다. 卽 『宗教는 狡猾한 僧侶의 産物이다.』라는 定義는 宗教現象을 充分히 觀察한 者의 客觀的 結論이 아니라 다만 卽지가 狡猾한 僧侶에 對한 不平等에서 나온 主觀的 侮辱에 不過한다. 『宗教는 絶代的 服從에서 나는 精神이다.』라는 定義는 그 定義者 自己가 個人的으로 가장 뜻깊게 揀이는 宗教現象을 選擇하여서 宗教現象의 全部인 듯이 討議함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의 滿足한 定義는 적어도 두 條件에 缺欠이 없어야 하겠다. 卽 우리의 態度는 可能的 限度까지 客觀的이어야 하고 우리의 方法은 宗教現象을 全部 包含한 觀察에 結論을 지어야 할 것이다. 卽 宗教現象을 □□的으로 觀察하면서도 公平한 態度로서 宗教經驗과 그 生活의 現象을 全部 包括한 觀察이어야 하겠다.